

# 산업장 보건간호관리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제17권 제5호, 1978

김모임 · 조원정

본 연구는 영동포구 구로공단내에 있는 산업장중 보건관리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11강좌를 실시하고, 교육전·후 조사를 하여 보건교육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보건교육을 받고, 교육전·후 조사에 응한 근로자 1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 연구대상자는 평균연령이 19.3세 이었고, 50.5%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처음 취업연령은 평균 17.0세이며, 평균 직장근무기간은 2.6년이었고, 출신지역은 산업장 소재지인 서울지역이 3.4%이었다.

2. 보건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지식정도는 교육후에 오답률 및 “모른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의 응답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평균 건강지식점수도 교육전 13.3점에서 교육후 16.4점으로 높아졌고, 특히 성병관리·결핵관리·영양관리·가족계획등의 지식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점수가 높을 뿐 아니라 같은 학력수준에서도 교육후에 지식의 향상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일반 질환에서 나타나는 22개 증상의 질병 인지율도 보건교육후에 상승되었다. 즉 보건교육이 대상자의 건강지식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3. 대상자의 병원의료자원 이용의도와 22개 개별증상의 해결방안에 대한 태도는 의료인을 찾아야 할 증상을 선택한 기준에 비추어서, 교육전보다 교육후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나타내어 보건교육이 근로자가 갖는 건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4. 22개 개별증상중 20개 유증상율이 교육후 감소되어 산업보건 간호관리중 보건교육을 행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건강지식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근율의 감소, 유증상율의 감소를 가져와 작업능률을 올려 산업장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산업보건 간호관리중 보건교육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단순분석 조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건교육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좀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다른 변수와 보건교육의 관계에 대한 다차원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